

울산항, 화학제품 수출입 쉬워진다!

해양부, 액체화학 5만톤 3선식 건설로 변경 ... 2만-5만톤급 7선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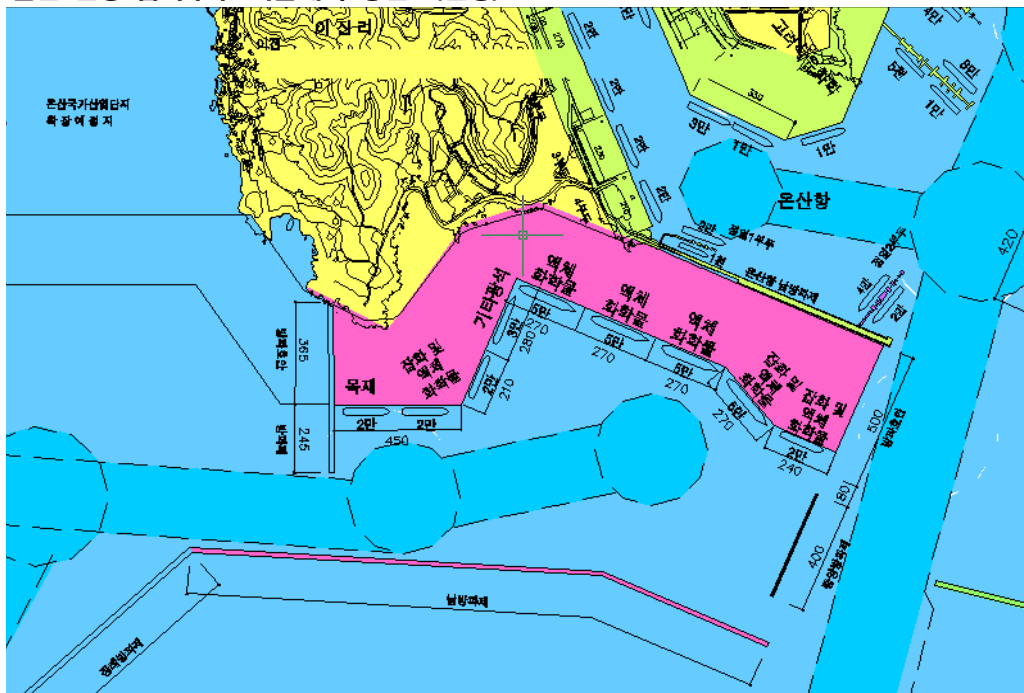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울산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10월말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안에는 200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예측한 울산항의 물동량을 토대로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도록 울산 신항 남측 부두규모를 당초 2만-3만톤급 11선식에서 2만-5만톤급 9선식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두별 취급품목도 일부 조정·변경했다.

특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부두규모는 대형화하는 대신 선석수를 줄임으로써 울산 신항 남측부두 총공사비를 약 222억원 절감하고, 울산항의 열악한 물류체계 개선과 함께 민간투자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했다.

해양부는 변경안을 토대로 2005년 울산 신항 남측부두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을 통해 민자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울산 신항 남측부두 개발계획 평면도(변경)



+ 화학/잡화 2만톤 3선식, 5만톤 1선식, 액체화학 5만톤 3선식, 기타 광석 3만톤 1선식, 목재 2만톤 1선식(총 5만톤 4선식, 3만톤 1선식, 2만톤 4선식)

<화학저널 2005/10/17>